

2022년도 산학협력단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5. 18.
재적위원	6명
참석위원	4명

1. 일 시: 2022년 5월 19일(목), 11:00

2. 장 소: 대학본부 2층 회의실

3. 참석 현황

- 참석위원: 박 득 위원장, 강수경 위원, 김윤정 위원, 정성일 위원,
- 불참위원: 임귀자 위원, 행정처장(공석) 위원
- 배 석 자: 김소현

4. 안 건 심의

- 1) 제1호 안건: 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심의
- 2) 제2호 안건: 2021회계연도 학교기업 결산(안) 심의

5. 회의 내용

박 득 위원장: 산학협력단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강의 및 학생지도와 각종 학교행사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및 기능을 설명 하다.

2021회계연도 회계결산(안)은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운영계산서 및 기타 부속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회계결산(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건의사항 또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길 위원들에게 주문하다.

(위원들 모두 1호, 2호 안건을 검토하다)

<간서명란>					
위원장		위 원	강 수 경	위 원	김 윤 정
위 원	정 성 일				

정성일 위원: 산학협력단회계 중 자산과 부채가 감소하였는데 자본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박 득 위원장: 연구비 전액 소진 증가로 인한 현금성자산 보유액 감소와 부가세 납부처리
수정분개로 인한 부채의 감소, 2021년 실행 사업 종료로 인한 수익 인식으로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의 감소폭보다 부채의 감소폭이 높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인 자본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일 위원: 자본의 비율이 자산과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득 위원장: 자본은 주로 전기에 발생한 운영차익재원이 누적된 것으로, 산단에서 주로 이월할
수 있는 재원은 간접비수익과 지식재산권수익임. 따라서, 간접비수익 누적 보유를
통해 미래 사업을 대비하고자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다소 높음을 설명.

김윤정 위원: 이러한 결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한 성과 분석도 실시하였는가?

박 득 위원장: 산학협력연구사업 총 10건, 지식재산권수익 2건, 지원금수익사업 총 17건으로
산학협력수익은 전기 대비 약 58%증가, 지원금수익은 전기 대비 7%증가.
이에따른 간접비수익은 약30% 증가하였음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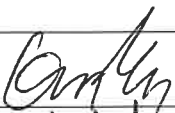
강수경 위원: 운영계산서에서 보듯,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로
인한 간접비수익도 증가되었음.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많은 교외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할 것. 본인이 2021회계연도 회계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안대로 확정시킬 것을 제안하다.

박 득 위원장: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동의를 구하다.
(참석위원 전원 동의하다)

박 득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학교기업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다.

6. 심의결과

- 참석위원 4명 전원 동의로 안건 1호, 2호를 승인함

<간서명란>					
위원장		위 원	강 수 경	위 원	김 윤 정
위 원	정성일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5. 19.

위원장 : 박 득



위 원 : 강 수 경



위 원 : 김 윤 정



위 원 : 정 성 일

